

창조의 원동력은 우리 생각에 있다



저자인 비카스 사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은 우리 생각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플루엔셜 제공〉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비카스 샤 지음, 임경은 옮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크리스 해드필드 전 우주비행사의 실패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말이다. 그는 실패할 일이 없다면 리더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 위험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발 하라리, 조던 피터슨, 놉 촘스키, 제인 구달, 잭 웰치, 마야 안젤루...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일군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면이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인식 활동의 소산이

다. 부다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형성한다”고 했다. 결국 개인적 생각은 씨줄과 날줄로 엮이며 오늘의 우리와 사회를 만들었다.

우리 시대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 인물들을 인터뷰한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이 출간됐다. 저자는 섬유·의류 기업인 스위스콧 그룹의 최고경영자이자 맨체스터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인 비카스 샤다. ‘생각 경제학’의 창립자이기도 한 저자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머스터드트리 이사로 활동하는 자선가다.

저자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은 우리 생각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세계 지성 134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금세기 최고 생각을 집대성한 ‘생각 경제학 프로젝트’인 셈이다. 책은 정체성, 문화, 리서십, 기업가정신, 차별, 갈등, 민주주의 등 모두 7개의 대주제로 구성돼 있다.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인도 명상가이자 작가인 사드 루르는 이렇게 답한다.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정체성은 그러한 인식 바탕 위에서 정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리더십에 대한 물음도 흥미롭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미국 경제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로버트 라이시는 이렇게 답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불평등과 부패의 위험성을 잘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 세계와 공공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부가 최상위층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평등은 거의 예외 없이 부패를 낳습니다. 권력을 위해 돈줄이 동원되고 남용되면서 정치 문화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묻는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지낸 스티브 발머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에 대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의 에너지와 지적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동원해서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미래의 기업가에게 건네는 조언도 있다. 방글라데시에 소액대출 개념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의 견해는 이렇다.

“자신만의 솔루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을 대신 정해주시지 않는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도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기회가 생기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해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인플루엔셜·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메타버스 비긴즈=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메타버스, 가상융합 등을 연구하는 저자 이승환이 메타버스를 분야별로 간명하게 풀어쓴 책이다. 저자는 메타버스의 기원과 성장 과정, 미래의 변화 등 메타버스의 다양한 면을 조명한다. 또한, 플랫폼, 기술혁신, 투자 측면에서도 메타버스가 어떻게 비상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굿모닝미디어·1만7000원〉



▲내 따스한 유령들=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가 등단 25주년을 맞아 펴낸 시집이다. 그가 5년만에 펴낸 6번째 시집이기도 하다. 팬데믹 시대의 삶을 돌아보며 인류의 변화를 기원하는 시 56편을 묶었다. 산을 파헤치고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나무들을 훼손하고 물고기가 사는 호수에 패널을 깔며 생태계를 훼손하는 요즘, 시인은 우리 곁 생명의 존엄성과 환경의 중요함을 환기한다.

〈창비·9000원〉

▲마녀는 꿈을 지킨다=‘오래된 약속’, ‘천사의 미소’, ‘비의 동화’, ‘달의 이면’ 등 마녀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곱 편의 이야기를 한권으로 묶었다. 저자 무라야마 사키는 마녀, 요괴, 요정, 천사, 인어, 반수반인, 늑대인간 등 등장인물을 통해 인간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신념과 긍지를 잃지 않고 간절한 꿈을 이루

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다.

〈씨큐브·1만5000원〉

▲남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손바닥만한 희망이라도’를 쓴 박승준 작가의 두 번째 에세이집. 은퇴 후 주방이라는 신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기록한 주방 적응기다. 주방 입성 4년만에 깨달음을 얻은 그는 ‘주방이야말로 은퇴 후 존재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주방일은 필수라’고 전한다.

〈오르골·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슬픔을 치료해 주는 비밀 책=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돼 슬퍼하는 주인공 롤리가 제프 이모의 비밀책을 보고, 책의 처방을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내용이다. 롤리는 ‘맛있는 사과 주스 마시기’, ‘좋은 땅에 씨앗을 심어보기’ 등 모두 일곱가지 일들을 하나씩 해내며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 5-10세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추천한다.

〈봄봄출판사·1만2000원〉

▲열두 살 정래 희망=어린이들의 꿈에 초점을 맞춘 33개 직업을 박성우 시인이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별을 보러 다니는 사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등 정말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시인의 관점에서 들려준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진실도 알려준다.

〈창비·1만3000원〉

▲그게 바로 화난 거야=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소설가인 톤 텔레헨이 들려주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시시때때로 마음속을 불태우는 알 수 없는 감정들에 이름을 붙여준다. 또 ‘노란배 두개비와 고슴도치’, ‘다람쥐와 개미’ 등 열 편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네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감정은 무엇이니?’라고 물으며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본다.

〈분홍고래·1만3000원〉

‘라 마르세예즈’에서 ‘기미가요’까지... 흥미로운 國歌 이야기

국가로 듣는 세계사

알렉스 마셜, 박미준 옮김



태평양의 섬나라 몰디브와 대한민국은 한 때 같은 ‘국가’(國歌)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스톡홀랜드 가곡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을 국가로 사용했다. 몰디브 시인 자밀 디다는 국가에 어울리는 곡조를 찾다 외삼촌집 벽시계에서 정오가 될 때 울러나온 멜로디를 듣고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작곡가 안익태가 ‘애국가’를 만든 1948년까지, 몰디브는 1972년까지 ‘올드 랭 사인’을 국가로 사용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은 알렉스 마셜이 쓴 ‘국가로 듣는 세계사-영국인 저널리스트의 배짱 잡는 국가 여행기’다. ‘뉴욕타임즈’에 문화와 관련한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프랑스, 미국, 네덜, 일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자료 조사 등을 책을 집필했다.

어느 나라에나 필요한 ‘상징’이 된 국가는 다양한 함의를 품고 있다. 며칠 전 끝난 올림픽은 국가의 집합체라 할 수 있었다. 금메달 수여식 때는 각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졌고, 부정행위로 국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 선수들 시상식에선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이 연주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가족 행사 때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패하고 현장감 넘치는 시작으로 오늘날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1792년 7월 프랑스 혁명 당시 517명의 의용군이 마르세유를 떠나 파리로 행진했던 경로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일본 국유인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한 ‘기미가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7세기부터 내려온 시에 영

국인 관악대 대장 존 윌리엄 펜튼이 곡을 붙여 1869년 만들어진 ‘기미가요’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곡이다. 일본 우경화의 흐름 속에 ‘기미가요’를 둘러싼 논쟁은 1999년 한 고등학교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책은 또 ‘회합’을 위해 백인이 지배하던 시기의 국가와 흑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부르던 국가를 함께 5개 언어로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도 소개한다.

저자는 말한다. “국가는 그저 엄숙하고 짧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을 단합시키거나 분열시킨다는 것, 과거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들기도 한다”고.

저자가 직접 만든 사이트(republicordeath.com)에서는 책에 언급된 국가를 비롯해 사진과 비디오, 노래 등을 통해 각 나라를 깊이 탐색할 수 있다. 또 틈새책방 홈페이지(teumsaebooks.com)에서는 우리말 가사가 포함된 주요 국가를 만날 수 있다. 〈틈새책방·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4>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4> <p>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수, 민사민형,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4>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4>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율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연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4>한국기원</h4>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율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p>	<h4>문화결혼상담소</h4>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4>해미패션</h4> <p>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이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p>	<h4>(주)K&J컴퍼니</h4> <p>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테크, 신재생에너지 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p>	<h4>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h4> <p>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p>	<h4>써니헤어샵가발</h4> <p>나주시 성북동 4거리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p>	<h4>송가네 반찬</h4> <p>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4>동양철학원</h4>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4>필스제화</h4>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리)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4>인철(仁喆)익스프레스</h4>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4>대신청소전문기업</h4>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p>	<h4>동태랑대구랑전문점</h4> <p>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p>
<h4>고전방</h4>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4>남도철학원</h4>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4>신신예술의집</h4>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4>새희망 직업소개소</h4>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p>	<h4>첨단돌슬감사탕산포점</h4> <p>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p>
	<h4>박당화랑</h4>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